

## News

### 정부, 올해 하반기 우리금융 지분매각 개시... "우호적 여건 전제"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로드맵에서 올해 상반기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약 2~3차례에 걸쳐 예보가 가진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매각한다는 방침  
우리금융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2조8천억원...이후 공모·블록 세일을 통한 지분 매각, 과점주주 매각 등으로 11조1천억원(올해 2월 말 기준)을 회수

### 금융지주사, '하이브리드'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팔 걷어붙인 까닭은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일을 기준으로 발행된 올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은 1조8,500억원으로, 지난해 총발행액의 약 73%... 남은 하반기를 감안했을 때 발행 증가세 상당...  
재무구조 안정성 관리·비은행부문 강화 위한 자금 조달...저금리 속 높은 금리에 영구채에 뭉치듯 몰려...발행액이 올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

### 銀 펀드 판매기준 강화방안 3분기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들이 '비(非)예금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초안을 수개월 동안 조율해 막바지 작업을 거쳐 3·4분기에 내용을 예정  
금감원 관계자, "중소운용사들은 규모가 적어 사고가 나면 손실 등을 책임질 수 없는 구조...구상권을 청구해도 받을 돈이 없어 사모펀드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 필요"

###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진출 소식에 ... 카드사 "건전성 규제 필요"

파이낸셜뉴스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후불결제 서비스'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검토...카드사들, 후불결제를 허용할 때 카드사에 준하는 건전성 규제 필요 주장  
금융당국, 이전부터 핀테크사에 소액 신용공여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네이버페이 후불결제에 허용되면 기존 카드사의 영역이었던 결제시장에서 입지가 더욱 확대될 것

### 하루짜리 보험들고 5년 후 "설명 못들었으니 해지해줘요"

머니투데이

내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이 하위 규정 마련을 서두르고 있어...  
보험업계, 위법계약해지권 등 일부 조항은 국내 다른 업권은 물론 해외에서도 도입된 적 없는 강력한 규제라 시행령 제정 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 캠코, 채권 발행 2조 확정...내달부터 기업자산 매입 나선다

뉴시스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자산을 매입해주는 프로그램 재원 마련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 발행 한도가 2조원으로 확정  
경영위기의 원인이 코로나19과 무관하더라도,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시장에서는 대한항공과 두산중공업의 참여 가능성에 주목

### HDC현산 채권 발행... "아시아나항공 인수 의지 보인 것"

이데일리

아시아나항공 인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이 2,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아시아나 인수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냐는 해석  
채권시장 관계자, "...돈이 급한 회사가 아니다...아시아나를 인수할 생각이 없다면 채권 발행 불발이라는 평판 훼손의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회사채 시장에 나올 이유가 없다"

### '환매중단' 옴티머스펀드 판매사들, 운용사 사기혐의로 고발

연합뉴스

판매사들은 운용사가 펀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 펀드 계좌의 가압류를 신청하는 한편 영업점 직원을 불러 상황을 공유하는 등 사태 대응에  
환매가 중단됐거나 만기가 남은 펀드 규모는 NH투자증권 판매분이 4천407억원, 한국투자증권 판매분이 287억원 등으로, 두 회사 판매분만 4천700억원 규모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